

# 료녕민속문화



심양시조선족문화학회 편

제 17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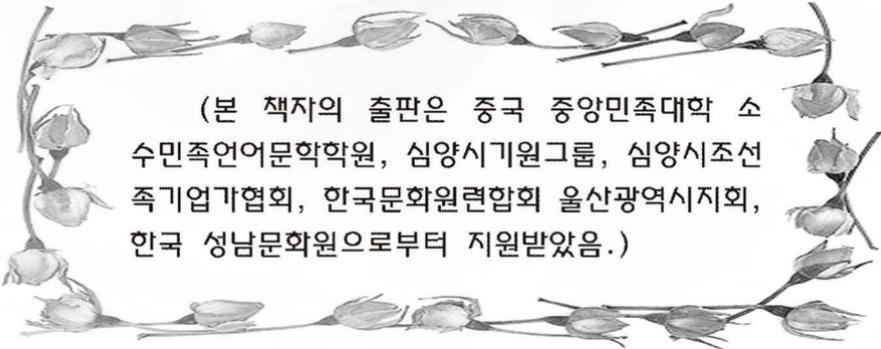


# 료녕민속문화

심양시조선족문화회 편

제 17집

료녕민족출판사



(본 책자의 출판은 중국 중앙민족대학 소수민족언어문학학원, 심양시기원그룹, 심양시조선족기업가협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한국 성남문화원으로부터 지원받았음.)

## 《 료흥문화 》 편집위원회

주 필 권춘철

부주필 림금산 최무삼 리문호 정용호

위 원 (ㄱㄴㄷ 순)

김룡호 김례호 김순옥 김일수 김진수 김창영  
김춘련 권춘철 류광순 리문호 리윤선 림금산  
문운룡 박경남 박애자 서정순 정용호 최무삼  
최영옥 최태렬

저 자 (ㄱㄴㄷ 순)

김금용 김련화 김룡호 김례호 김의도 김창영  
김춘련 권비영 리문호 리창인 림금산 박경남  
박경상 박병대 박산하 박애자 박종숙 서정순  
손민화 이명길 이부열 이응철 정용호 조옥자  
최영옥 최은화 최종남 최태렬 홍 원 황정자



세모논 김군씨



문우들과 함께



문우들과 함께



문우들과 함께



문우들과 함께



문우들과 함께



심양시조선족문학회와 춘천문인협회 공동 주최하에 진행된  
중·한 국제문학교류세미나 기념(2010. 9. 4)



세미나에 참가한  
대표단 일행



남이섬 잣나무길에서

《료동문학》제16집 출간기념 및 2010 심양시조선족문학회 문필회

일시: 2010년 8월 17-18일 장소: 무순 영반저수지 남산풍경구



《료동문학》제16집 출간기념 및  
2010심양시조선족문학회 문필회  
(2010. 8. 17-18)



회의장



저수지 유람선에서



저수지 유람선에서



심양시조선족문학회(평론분과) 철령문필회(2010. 10. 15-16)



심양시조선족문학회(수필분과) 수필읽기모임(2010. 11. 5)

# 차례

## • 김군 추모특집 •

### ◇ 김군 부분유작모음 ◇

[미니소설] 소녀(2) / 행여나가 사람을 잡는다(5)

[수필] 래생의 밑거름 만들기(9) / 들꽃이 향기로운 리유(13)

[잡문] 내 존재(17)

[런시조] 백발(白发)(19) / 살아온 리유(20)

[동화] 토끼전(21)

### ◇ 김군 추모글 ◇

그리움만 남겨놓고 간 사람 ..... [심양] 최 렬(25)  
——고 김진수를 그리며

비에의 신빈행(新賓行) ..... [심양] 리문호(35)

|  |
|--|
| 김군이, 다음 필회때도 어김없이 올거지 ... [심양] 립금산 (45)  |
| 제 가슴속에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 [심양] 김창영 (50)    |
| ——고 김진수선생을 추모하여                          |
| 작가 고 김군선생님을 추모하며 ..... [심양] 소 심 (54)     |
| 김군선생님을 그리며 ..... [심양] 김춘련 (58)           |
|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 [신빈] 김련화 (62)          |
| ——고 김군선생님께                               |
| 고 김군님의 명복을 빕니다 ..... [심양] 리창인 (64)       |
| 김군을 보내며 더듬은 사색(외 1수) ..... [심양] 리문호 (66) |
| 님께서 가시던 날 ..... [심양] 방주(放舟) (70)         |
| ——고 김군씨를 바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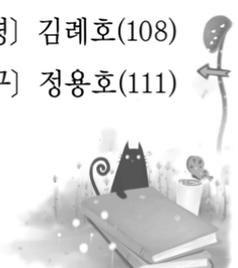
• 춘천특집 •

◇ 중 · 한문학세미나 ◇

|   |
|---|
| 한 · 중문학교류의 의의와 역할 ..... [한국] 박종숙 (72)   |
| 조선족문학의 현황과 전망 ..... [철령] 김례호 (75)       |
| 한 · 중(조선족)문화예술 교류의 성과와 과제 [한국] 최종남 (82) |
| 조선족문학의 위치와 출로 ..... [영구] 정용호 (92)       |

◇ 시화전 부분작품 ◇

|                                |
|--------------------------------|
| 기내(機內)에서 ..... [한국] 황정자 (97)   |
| 더위사냥 ..... [한국] 이응철 (98)       |
| 어머니 ..... [단동] 조옥자(102)        |
| 화장투정 ..... [대련] 박애자(104)       |
| 순결과 사랑의 회귀 ..... [철령] 김례호(108) |
| 인생 ..... [영구] 정용호(111)         |



◇기행수필◇

우주속의 한 순간, 추억속의 영원함 ..... [대련] 박애자(112)  
—심양시조선족문학회 대표단 2010년 한국기행

• 초대작가 • [김금용소시집]

뒷등(외 4수) ..... [한국] 김금용(146)

• 단편소설 •

카푸치노 ..... [대련] 정 아(153)

• 수필 •

구름처럼 바람처럼(외 2편) ..... [심양] 최영옥(164)

터이야기 하나 ..... [심양] 서정순(175)

• 시 •

물레소리(외 1수) ..... [심양] 박경남(182)

꽃차(외 1수) ..... [심양] 손민화(184)

련정(외 2수) ..... [심양] 홍 원(187)

• 시조 •

인체기행(1)(외 3수) ..... [심양] 리창인(191)

• [ 詩 만나러 가는 길 ] 시리즈\_002 •

아리랑고개를 넘어 하얀 신앙이 여기 탑으로

선다 ..... [대련] 우 몽(194)

—김창영시인의 “서탑54”을 바라보며

• 평론 •

효도는 마음과 사랑으로 ..... [철령] 김레호(196)

• 번역소설 • [도시정감미니소설]

천사의 열쇠 .....방리리 글/ [단동] 조옥자 역(201)

• 민간이야기 •

무수옹(无愁翁)의 이야기 ..... [철령] 박병대 수집정리(204)

• 장편산문소설연재(5) •

약속은 하늘나라에서 ..... [영구] 정용호(210)

• 울산코너 •

비둘기의 발가락 ..... [한국/울산] 김의도(215)

섬마루 ..... [한국/울산] 박산하(219)

소리의 양면 ..... [한국/울산] 이명길(224)

짜퉁 ..... [한국/울산] 이부열(228)

세월 ..... [한국/울산] 권비영(232)



## • 김군 추모특집 •

[편자의 말: 조선족문단에서 중견작가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왕성한 창작열정을 보여오던 김군님이 우리를 떠난지도 이미 몇개월이 지났다. 김군님은 30여년동안 문학활동을 해오면서 벽소설창작에서 이룬 성과로 하여 우리 문단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또한 소설, 수필, 잡문, 시, 동화 등 다양한 창작양상을 보여줌으로 하여 더 인기를 끌었다. 본지는 제한된 지면이어서 그의 유작을 몇편(수)밖에 신지 못하는데 유감을 표하면서 문인들의 추모의 글도 함께 올리는바이다. 유작에서 김군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해주는듯하다. 그이가 하고싶은 말은 분명 아직 많았을것이다. 김군은 갔으나 그의 글에 숨배인 마음의 고백—살아숨쉬는 김군과 우리는 이 제한된 지면을 통해 대화해보려 한다. 김군님은 진실한 고백을 하고있다. 그는 진정 “못난이”였으며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아왔었다.]

### ◇ 김군 프로필 ◇

본명 김진수, 1955년 7월 25일생.

1975년 10월—1977년 1월 룡녕성조선족사범학교 졸업.

1980년 7월—1985년 6월 연변대학 조문학부 조선어전업 졸업.

신빈현조선족소학교 전임 교장.

중편소설 “동동 삶”을 비롯, 단편소설, 벽소설, 수필, 시 수백편.

벽소설집 《사랑의 외연》 출판.

료녕작가협회, 연변작가협회 회원, 심양시조선족문학회 리사.

2010년 9월 10일 심장병으로 타계.

[미니소설]

## 소녀

—김군

얼어붙은 땅이 녹기를 시작하였다.

산에 들에 풀과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였다.

강남을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

어느날,

토방에 앉은 초중 2학년생인 소녀는 제비 한쌍이 진흙을 물어다 처마밑에 새집을 짓고있는걸 점도록 바라보고있었다.

얼마나 힘이 들까?

소녀는 생각하였다.

조 알미운 참새들!

소녀는 일한자루 안하고 작년엔 제비들이 살던 옛집을 차지하고 편케 살고있는 참새들이 그지없이 미워났다.



“아빠, 왜 제비들은 제 집을 빼앗아내지 않고 힘들게 새 집을 지어요?”

지난해 이무렵 소녀가 들일을 갔다오는 아버지에게 물었던 말이였다.

“그건 제비들의 마음이 참새들보다 착하기때문이겠지.”

“그럼 착한 제비는 손해만 봐야 하는가요?”

“그게 동물세계의 생존법칙의 하나란거다. 네가 후날에 알게 될거다.”

.....

소녀는 반나마 지어진 제비둥지를 바라보며 더는 옆에 있을수 없는 착한 아빠생각을 곁들였다.

어느 제비가 착한 아빠제비일가?

소녀는 씬없이 진흙을 물어다 새집을 짓고있는 제비 한쌍 중에서 어느 제비가 아빠제비일가고 아무리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를 았았다.

이날 밤 소녀는 꿈을 꾸었다.

제비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지나 아기제비들이 쪼그만 주둥이를 벌려 아빠엄마제비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받아먹는걸 바라보고 섰다가 돌아서는데?!

“악—”

소녀는 놀랐다.



착한 아빠가 있을 자리를 후아빠가 될 사람이 차지하고 험상궂은 얼굴을 해가지고 자기를 노려보고있었던것이였다.

꿈결에 소스라쳐 잠을 깬 소녀는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쯔쯔, 악몽을 꾸 모양이구나, 초저녁부터. 엄마가 옆에 있으니 마음놓고 자거라.”

엄마는 잠을 앗긴 소녀의 마음을 알수가 없었다.

[2009. 12. 1]



## 행여나가 사람을 잡는다

—김군

천지의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 점심무렵에도 그랬다.  
갑작스런 천둥소리를 뒤이어 대줄기같은 소나기가 기승을  
부리다 이내 날이 맑게 개였다.

활궁모양으로 유유히 흐르는 소자하강반에 자리잡고 사는  
조선족동네의 어른들이 하나, 둘, 셋 강둑의 스무나무그늘밑에  
모여들었다.

여름철이면 그 스무나무그늘은 로인들이 모여 한담하는 곳  
이었다.

.....

“허, 오늘은 허풍쟁이 광령감이 집에 없는가봐...”

“아니, 어쩐 그렇게 시침을 푹 따고 거짓말을 잘 하시는  
지...”

이 동네에 이사를 온지 얼마 되지않는 설씨령감이 조심스레



최령감을 넘겨다보며 말을 이었다.

“입담도 대단하던데요…”

……

이렇게 그들은 동네방네 소문짜한 대포쟁이 곽령감에 대한 이야기로 한가함을 땀하는데 저쯤 곽령감이 바구니를 들고 강둑앞으로 난 길로 걸어오고있었다.

“호랑이도 지말하면 온더이… 어이 곽령감, 이리 와서 대포나 좀 놓다가소와?”

돌석이 할아버지가 곽령감을 불렀다.

“허참 한가들하네. 으음.”

곽령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실컷 한담들이나 하게. 난 저 앞동네 강가에 쇠고기 사러가는 길이네. 방금 벼락맞아 죽은 쇠고기니 헐값에 안팔게나. 으음!”

곽령감은 말을 남기고 천방지축 강가로 향하였다.

“허허, 저 령감 또 허풍이네. 누가 속을 사람이 있구…”

최령감의 말이였다.

“설마 하는 말마다 허풍이겠어요. 방금 소나기 올 때 벼락소리가 굉장하다 하긴 했는데…”

갓 이사를 온 설씨령감이 하는 말이였다.

“아이구, 이 정신머리 좀 봤나! 할망구 약 달일 시간이…”

돌석이 할아버지가 뒤말을 사리며 자리를 떴다.

